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재고찰 -통시적 방법론 평가와 공시적 접근 제안-

이재현*

1. 들어가면서

빌립보서에서 세 번(빌 1:19, 28; 2:12) 사용된 σωτηρία라는 명사는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 빈도수가 낮은 것은 아니다.¹⁾ 신약 헬라어 표준 사전으로 일컬어지는 BDAG는 이 단어의 의미 영역을 크게 어려움이나 위험 등에서의 구조, 구출, 해방의 의미(deliverance)와 영적인 차원의 구원(salvation)으로 나눈다.²⁾ 하지만, 이 단어는 그것이 갖는 넓은 의미 영역으로 인해 종종 논쟁거리가 되었고, 그에 따라 다른 번역과 해석으로 표현되곤 했다. 특별히 빌립보서와 관련해서 빌립보서 1:19와 2:12의 용례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의 지적 탐구심을 자극했고, 주석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관문이 되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 있는 σωτηρία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빌립보서 1:19는 이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관찰을 유도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σωτηρία를 이해하기 위한 접근법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말 성경에서 『새번역』의 “[감옥에서] 풀려나리라”는 것과 다른 번역본들의 “구원”이라는 번역 차이도 σωτηρία를 접근하고 해석하는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³⁾

빌립보서 1:19와 관련해 지금까지 제시된 해석들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통시적 접근법이다. 이것은 빌립보서 1:19가 욕기 13:16(LXX)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구약의 틀에서 신약을 해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공시적 접근이다. 이는 빌립보서 1:19를 우선적으로

* 침례신학대학교, 평택대학교 강사. 신약학.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C-A00305).

1) 이것은 다섯 번 사용된 로마서(롬 1:16; 10:1, 10; 11:11; 13:11)와 네 번 사용된 고린도후서(고후 1:6; 6:2[두 번], 7:10) 다음으로 많은 빈도수이다.

2)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985-986.

3) 많은 영어 성경의 deliverance라는 번역은 영적인 영역을 의미하는지 일반적 의미의 구조, 해방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 예, NASB; NRSV; RSV; NIV; TNIV; NLT; NET 등등.

로 빌립보서의 내적 증거를 통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여러 바울 서신들을 참고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본문을 통한 사회-역사적 상황 정보 이해를 수반하기도 한다. 때로 이 두 접근법은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고 상충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는 어떻게 접근하여 이해해야 할까? 본 논문은 이 두 방법을 고찰한 후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각광받고 있는 통시적 방법을 사용한 이해를 먼저 살펴보고 그 해석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공시적 방법의 여러 해석들을 평가한 후 필자의 이해를 제시하려 한다.

2. 통시적 접근 방법 및 평가

2.1. 리차드 헤이즈(Richard B. Hays)와 본문 상호성(intertextuality)

주석가들은 빌립보서 1:19의 표현이 욥기 13:16(LXX)과 비슷한 것을⁴⁾ 오래전부터 인식했지만 욥기 자체가 빌립보서 내용을 통제하는 식의 해석은 보편화되지 않은 듯했다.⁵⁾ 하지만, 최근 주석들의 경향은 다르다. 많은 주석들이나 연구서들은 욥기의 내용을 빌립보서 해석의 중요한 열쇠로 여긴다.⁶⁾ 이것의 기본 전제는 바울이 구약 사상에 젖어 있는 유대인이기에 그의 서신의 의도나 신학은 구약 혹은 유대 문헌과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봄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본문 상호성 접근의 해석학적 틀을 제시한 사람은 헤이즈이다.⁷⁾ 물론 1920년대에 마이클(J. H. Michael)이 처음으로 빌립보서

4) 빌 1:19 τοῦτό μοι ἀποβήσεται εἰς σωτηρίαν; 욥 13:16 τοῦτό μοι ἀποβήσεται εἰς σωτηρίαν.

5) 예를 들어 100여 년 전의 주석인 Marvin R. Vincent,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Philippians and to the Philemon*, ICC (Edinburgh: T & T Clark, 1897), 23은 빌립보서 1:19가 욥기의 인용이라고 말하지만, 욥기를 통해서 빌립보서를 해석하지 않는다. 또한 동시대 주석가인 라이트풋(J. B. Lightfoot)은 욥기 인용을 언급하지도 않는다.

6) 예, R. R. Melick, *Philippians, Colossians, Philemon*, NAC (Nashville: Broadman Press, 1991), 80-81; G. D.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130-31; M. N. A. Bockmuehl,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BNTC (Peabody: Hendrickson, 1998), 82-83; S. E. Fowl, *Philippians*, THN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43-45; D. E. Garland, "Philippians",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eds., *The Expository Bible Commentary 12* (Grand Rapids: Zondervan, 2006), 202; 김연태, 『빌립보서』,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18-119 등등.

7) R.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본문 상호성은 어떤 본문은 이전의 다른 본문의 내용을 투영하거나 반영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헤이즈는 구약 연구(예, Michael Fishbane,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에서 사용된 방법을 신약에 도입한 것이다.

1:19를 욱기의 내용으로 해석했고 이후 학자들이 그 의견을 따르기도 했지만,⁸⁾ 헤이즈는 본문 상호 연관성의 자료에 직·간접 인용을 너머 은근하게 암시되었다고 하는 울림(echo)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그 연결성의 지평을 확대시킨다. 여기서 울림이란 의식적 의도 없이 사용되는 상징이나 암시를 의미하는 것으로,⁹⁾ 헤이즈는 해석에 있어 “상식(common sense)” 요소가 있기에 현대 독자들도 고대 독자들이 들었던 본문간의 상호 울림을 들을 수 있다고 본다.¹⁰⁾ 따라서 현대 독자들도 과거 바울의 역사적 상황을 알고 그가 사용했던 본문들을 안다면, 이천 년 전 바울이 구약을 통해 들었던 메시지나 암시 등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헤이즈가 본문 상호 울림 설명의 예로써 제시한 것이 빌립보서 1:19이다.¹²⁾ 비록 빌립보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달리 구약의 직접 인용이 없고, 간접 인용 수도 적지만,¹³⁾ 헤이즈는 빌립보서 1:19의 표현을 욱기 13:16의 울림으로 보았다. 그에 의하면, 울림으로서의 빌립보서 1:19의 표현은 구약(LXX)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욱기의 내용을 떠오르게 했을 것이며, 바울의 정황을 욱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듣게 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바울 역시 이런 울림의 표현을 통해 비록 무죄하지만 비난받고 있는 욱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은 은연중에 동일시했을 것이라고 한다. 즉,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욱의 이야기를 통한 울림으로 자신의 고난이 긍정적 결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런 울림 표현은 시기와 경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자들(빌 1:15-17)을, 욱에게 위로하러 왔지만 실제로 고통을 주는 친구들과 연결시키는 효과를 준다고 한다. 그 결과 최종 판단자인 하나님 앞에서 바울 자신이 진실한 복음 전파자였음이 인정될 것임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고 해석한다.

바울 서신에 대한 이런 통시적 접근은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이해에 있

8) J. H. Michael, “Paul and Job: A Neglected Analogy”, *ExpT* 36 (1924-25), 67-73; idem,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MNTC (New York: Harper, 1928), 46-48; cf. Jean-Francois Collange, *The Epistle of Saint Paul to the Philippians* (London: Epworth Press, 1975), 59; J. 그닐카, 『필립보서』,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25-126.

9) R.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29.

10) *Ibid.*, 27-28.

11) 이런 본문 상호성은 여러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에 나온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울림이나 바울 서신 자체에서의 본문 상호적 이해 등이 있다. 한편 본문 상호성은 번역의 영역에서도 연구 중인데, 이에 대해서는 필립 타우너, “본문 상호성: 번역에서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양재훈 역, 『성경원문연구』 20 (2009), 137-154를 참조하라.

12) *Ibid.*, 21-24.

13) *Ibid.*, 200 n. 78에서 헤이즈는 E. E. Ellis,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57), 154를 인용해 빌립보서에 여덟 개의 구약 간접 인용이 있음을 말한다.

어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그 한 가지는 이 단어 이해를 위한 해석의 우선권이 구약 본문에 있는 듯한 경향을 준 것이다. 빌립보서의 문맥이나 언어학적 증거들, 그리고 본문의 논리 구조 등의 자료들은 욥기를 통해 나타난 선이해를 지지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런 경향 이면에는 바울이 지금 욥기 본문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본문은 그가 사용한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는 전제가 흐르고 있다. 물론 모든 학자들의 연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욥기 내용이 바울이 사용한 단어의 의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음은 분명하다. 일례로 갈랜드(D. E. Garland)는 이 단어에 대한 여러 해석을 나열하고 그 결정의 어려움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약 욥기의 인용을 “하늘 법정에서의 입증(vindication)”이라는 결론의 근거로 삼는다.¹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영향은 σωτηρία를 미래 종말적 개념에 치우쳐 생각하게 한 것이다. 이것은 크게 이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주로 미래적 개념을 반영한다는 것과 욥기의 내용이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판단에서 욥의 의로움이 인정될 것이라는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특별히 욥기를 통한 미래 재판에서의 인정 개념은 바울 역시 동일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단어의 뜻을 미래 종말적 구원으로 더욱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¹⁵⁾

이런 통시적 접근법에 의하면,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는 미래 종말적 구원이나 최후에 있을 하나님의 인정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궁극적 구원’ 혹은 ‘궁극적 인정’으로 번역될 수 있다.

2.2. 통시적 접근에 대한 비평적 평가

헤이즈로 대변되는 통시적 접근과 그에 따른 의미해석이 얼마나 타당할까? 얼핏 보기에 통시적 접근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며, 그에 따른 해석도 신빙성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접근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크게 접근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와 욥기를 적용하는 데 나타나는 문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4) D. E. Garland, “Philippians”, 202; P. T. O’Brie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110도 같은 경향을 보인다.

15) R. R. Melick, *Philippians*, 81; F. Thielman, *Philippian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1995), 75 n. 3; G. D.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131; B. Witherington, *Friendship and Finances in Philippi*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 46 등등.

2.2.1. 헤이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한 통시적 접근법의 방법적 문제¹⁶⁾

헤이즈는 바울 서신에서 구약의 울림을 식별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유용성(availability), 소리 크기, 반복성, 주제의 통일성, 역사적 가능성, 해석사, 그리고 만족도가 그것이다.¹⁷⁾ 유용성은 울림의 자료가 저자나 독자에게 사용 가능한 것인가와 관련 있다. 기본적으로 저자와 독자가 같은 자료를 접근할 수 있으면 서로가 동일한 울림을 들을 수 있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순진하고 단순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자료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료란 어떤 자료를 의미하는가? 구약 본문인가 아니면 해석된 본문인가?¹⁸⁾ 더 나아가 바울이 어떤 자료를 사용하든 그의 독자들 역시 바울과 동일한 자료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스탠리(C. D. Stanley)가 보여준 것처럼 현재 교회의 상황과 달리 높은 문맹률과 유대교 자료에 대한 제한적 접근성 때문에 바울의 이방인 독자들이 본문 상호 자료에 대해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¹⁹⁾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이방인 독자들이 그가 들었던 울림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었을까? 만일 들을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울이 들었던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이런 면에서 울림을 식별하는 데 유용성의 기준은 적절하지 않다.²⁰⁾

16) 이 부분은 필자의 출처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2010), 7-12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17) R.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29-33.

18) 예를 들어 C. A. Evans, “‘It is Not as though the Word of God Had Failed’: An Introduction to Paul and the Scriptures of Israel”,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Paul and the Scripture of Israel*, JSNTSup 83 (Sheffield: JSOT Press, 1992), 13-17은 많은 경우 바울의 자료는 구약 원문이 아닌 해석된 것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C. D. Stanley, “‘The Redeemer will Come ἐκ Σιὼν’: Romans 11:26-27 Revisited”,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Paul and the Scripture of Israel*, JSNTSup 83 (Sheffield: JSOT Press, 1992), 118-142는 바울 자료들은 많은 경우 전해진 전승들을 채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19) C. D. Stanley, *Arguing with Scripture* (New York: T&T Clark, 2004), 38-61. 그는 전통적 신약의 구약 사용 연구의 전제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의 맹점들을 지적한다. 전통적 방법들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들은 다음과 같다: (1) 바울의 독자들은 유대교 경전의 권위를 인정하고 기독교 윤리의 근거로 여긴다; (2) 바울의 독자들은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LXX)을 자유롭게 볼 수 있으며 아무 때나 연구할 수 있다; (3) 바울의 독자들은 정기적으로 구약성경을 읽으며 바울이 없을 때에도 그것들을 연구할 것이다; (4) 바울의 독자들은 바울이 사용한 유대교 문헌에 대한 직, 간접 인용들과 심지어 ‘울림’까지 들을 수 있다; (5)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신의 독자들이 유대교 경전이나 문헌에 대한 배경지식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썼을 것이다; (6) 바울도 자기가 인용하는 부분의 원래 문맥을 다 알고, 그것을 고려하면서 사용했을 것이다; (8) 바울은 자신의 교인들이 자기가 사용한 구약 인용들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9)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인용들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은 바울이 원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을까를 연구하는 것이다.

20) S. E. Porter,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A Brief Comment on

소리 크기는 울림이 있다고 여겨지는 본문들과 바울 서신 간의 단어나 문장 형태의 뚜렷한 유사성과 관련 있다.²¹⁾ 그러나 헤이즈는 분문상호성 자료의 유사성을 어떻게 구분할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 유사성이 동일 단어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동의어나 동족어를 포함해야 하는가? 울림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불분명하기에 이 역시 적절한 기준이 되기 어렵다.

세 번째 기준인 반복성은 울림이 등장하는 횟수와 관련 있다. 이 기준은 같은 울림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발생될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포터(S. E. Porter)가 지적한 대로 만일 바울 서신에서 한 번만 등장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²²⁾ 사실, 본 논문의 관심사인 빌립보서 1:19의 경우는 바울 서신 중 한 번만 언급된 것이기에 반복성의 기준에 의하면 울림이 아닐 수 있다.

마지막 네 개의 기준들은 울림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미 가정된 울림의 해석에 대한 것이다. 특히 헤이즈가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말한 ‘만족도’는 울림을 통해 읽은 본문이 현대 독자의 경험에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가에 관한 것이다.²³⁾ 황당하기 그지없는 기준이다. 이는 바울의 원래 독자를 21세기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과 동일시하는 것이다. 오히려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1세기 독자들이 바울이 의도한 바를 잘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19에 나오는 울림을 언급하면서 헤이즈는 “바울이 여기서 읊을 암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암시들은 너무도 미묘해서 그의 독자들이 인식했을 것 같지 않다”고 고백한다.²⁴⁾ 만일 바울의 1세기 독자들이 들을 수 없었다면, 21세기에 있는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꼭 그것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혹자는 들어야 한다고 한다.²⁵⁾ 하지만, 이것은 바울의 글이 서신이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서신은 이야기와 달리 분명한 독자가 있고, 저자는 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 것이다. 그렇기에 만일 바울이 1세기 독자들에게 의도하지 않았고 그 독자들도 인식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굳이 그것을 들을 필요는 없다. 그러므로 헤이즈가 제시한 기준은 해석학에 관련된 것이지, 울림을 찾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분별의 기준이라고 할 수

Method and Terminology”,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Early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of Israel: Investigations and Proposals*, JSNTSup 14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83.

21) R.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30.

22) S. E. Porter,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83.

23) R.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31-32

24) *Ibid.*, 32.

25) S. E. Fowl, *Philippians*, 45.

는 없다.

그러면, 바울서신에서 구약 인용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바울은 분명히 그의 서신들에서 구약을 사용했고, 많은 경우 자신이 직접 인용을 한다는 단서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단서들이 없는 경우이다. 이럴 경우, 그것이 구약의 인용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는 여기서 그것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의도는 없다.²⁶⁾ 단지 그것을 정의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려는 것이다. 즉, 구약을 통해 바울 서신을 해석하는 그 첫 단계조차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빌립보서 1:19의 경우는 어떨까? 이것이 욥기 13:16의 울림일까? 우선 바울은 이 부분에서 구약 인용 공식으로 여겨지는 “기록되었으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직접 인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²⁷⁾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 부분이 구약 인용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1:19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표현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²⁸⁾ 이런 면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명명하든 간에 구약 LXX와의 ‘표현의 연관성’은 있어 보인다.²⁹⁾ 그렇다면, 이런 연관성이 빌립보서 내용 이해에 도움을 주는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통시적 접근을 주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의 어려움들을 살펴보자.

2.2.2. 통시적 접근이 가지는 표현의 연관성과 본문 이해 연결의 난제들

헤이즈와 같이 통시적 접근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표현상의 직, 간접적 연결성을 본문 이해의 열쇠로서 주저함 없이 사용한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에 대한 여러 해석 경향들을 보이곤 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데, 저자와 독자를 중심으로 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다.³⁰⁾ 우선 독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

26) 헤이즈의 울림 개념에 대한 비평적 연구 개괄에 대해서는 K. D. Litwak, “Echoes of Scripture? A Critical Survey of Recent Works on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CurBS* 6 (1998), 260-288을 참조.

27) E. E. Ellis,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154.

28) 예를 들어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0), 785는 빌립보서 1:19를 욥기 13:16의 인용으로 본다.

29) 빌립보서 1:19의 내용과 욥기와의 연관성을 정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J. Reumann, “The (Greek) Old Testament in Philippians: 1:19 As Parade Example - Allusion, Echo, Proverb?”, S. A. Son, ed., *History and Exegesis: New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E. Earle Ellis on His Eightieth Birthday* (New York: T&T Clark International, 2006), 189-200을 참조. 그는 이 표현을 격언적(proverbial) 용례라고 본다.

방인 중심의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서 1:19의 표현을 통해서 욥기의 내용을 얼마나 인식할 수 있었을까? 또, 그들이 그 내용을 욥기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것으로 바울이 말하는 바를 욥기를 통해서 이해했을까? 저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구약과의 표현의 연결성을 통해 빌립보서 1:19를 이해하기를 기대했을까? 더 나아가, 바울이 보인 표현의 연관성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구약 사용일까? 아니면 무의식적 관용 표현일까? 만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구약 사용이라면 바울은 구약 본문의 의미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인지하고 사용했을까? 그리고 그 인지한 내용을 얼마만큼 반영했을까? 대답하기 쉽지 않다. 무엇하나 자신 있게, 소위 말하는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질문들이다. 그럼에도 통시적 접근법 선호자들은 이런 숨은 질문들을 간과하고 표현의 연결성이 자동적으로 현재 본문의 열쇠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통시적 관점을 가진 많은 학자들은 욥기 13:16의 내용이 미래 종말적 구원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욥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긍정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바울 역시 그 개념을 내비친다고 본다. 하지만, 과연 욥기의 표현이 그러한 개념을 내포하는가? 구약 학자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욥기의 시작은 까닭모를 고통을 당하는 욥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의 원인을 그의 죄로 진단하며 욥과 논쟁한다. 이에 욥은 그들과 논쟁하다가 자신의 무죄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과의 논쟁에 호소하여 인정받기 원한다(욥 13:3). 그는 자신의 이런 결심을 친구들에게 드러내는데(욥 13:13-19), 욥기 13:16은 바로 그 결심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등장한다. 욥이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기본적으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인간의 논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욥 9:2-3, 32-33). 하나님과의 논쟁은 그를 위협하게 할 수 있고(욥 13:14) 심지어 자살 행위(욥 13:15)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아뢰려 하고 이것은 그에게 구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욥 13:16).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가?

우선 욥이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은 시점은 미래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이다. 욥은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친구들의 정죄의 화살에서 하나님과 지금 논쟁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다. 실제로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부분인 욥기 13:20-14:22의 내용은 죽음 이후 소위 최후 심판 때

30) 구약 사용에 대한 저자와 독자 중심의 논의에 대해서는 Steve Moyise, “Paul and Scripture in Dispute: Romans 2:24 As Test-Case”, *PIBA* (2006), 78-96을 참조.

이야기 할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욥이 계속해서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의 상태를 논하는 것은 죽음 이전에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³¹⁾ 이와 관련해서 욥이 말하는 구원 역시 죽음 이후 자신의 죄용서나 의로움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클라인스(David Clines)가 지적한 대로, 이것은 하나님과 따지는 과정에서 죽임을 당할 지라도 욥이 얻고 싶어 하는 자기 의로움에 대한 확신 내지는 확증일 가능성이 있다.³²⁾ 현재 욥은 그 어디에도 희망을 둘 데가 없고, 더 나아가 이유 없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욥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의 논쟁이 성사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로움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욥 13:16). 그만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싶은 것이다. 그렇다면, 욥기 13:18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논쟁 후에 “정의롭다 함(『개역개정』)”을 얻는 것 역시 논쟁의 결과로 욥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무죄성에 대한 인중에 가까울 수 있다.³³⁾ 이런 해석이 적절하다면, 욥기 13:16의 내용은 미래 종말적 구원이 아닌, 모든 초점을 자신의 의로움에만 두고 자신의 무죄성만을 입증하고 싶은 욥의 열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면, 그리고 바울이 이런 욥기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 빌립보서 1:19에서 미래 종말적 구원 개념을 도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만을 집착하는 욥의 모습이 하나님과 예수께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과 어울려 보이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필자가 구약 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해 정리한 것에 반박하며 다른 이해를 제시할지 모른다.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통시적 접근법의 어려움이 더 드러나게 된다. 현대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은데, 욥기 본문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인용이나 울림을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을까? 현대 학자들의 구약 해석과 바울의 해석이 동일한 것이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을까? 만일 서로 다르게 했다면? 사실 이 문제들도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구약과의 표현 일치에 관해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 부분을 다룰 때, 통시적 방법을 일차적 접근법으로 고집하

31) 욥이 죽음 이후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예를 들어 John E. Hartley, *The Book of Job*,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235와 D. J. A. Clines, 『욥기 1-20』, WBC,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338은 부정적인 반면 D. J. Estes,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2005), 69와 R. L. Alden, *Job*,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3), 168은 긍정적이다.

32) D. J. A. Clines, 『욥기 1-20』, 671, 706.

33) Ibid., 315.

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읍기를 통한 통시적 방법 보다는 바울이 자신의 논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주는 서신의 본문 그 자체와 그것을 통한 상황을 우선시 하는 공시적 접근이 더 적절할 것이다.³⁴⁾

3. 공시적 접근 방법과 빌립보서 1:19 이해

3.1. 공시적 접근 방법을 통한 빌립보서 1:19 이해들

통시적 접근과 달리 공시적 접근의 특징은 구약 본문을 해석의 일차적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구약과의 표현적 연관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일차적 해석은 서신 자체의 정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공시적 접근은 빌립보서 1:19에 대한 몇 가지 이해들을 가능하게 한다.

3.1.1. 석방으로서의 구원

공시적 접근을 통해 제기된 한 이해는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가 바울의 석방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것은 종종 재판에서의 승리 개념까지 연결되기도 한다.³⁵⁾ 이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에 의지한다. 먼저, BDAG에 의하면 σωτηρία의 일차적 의미는 임박한 죽음에서의 구원 같은 육체적 영역에 초점이 있다.³⁶⁾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단어를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 완성을 염두에 두고 많이 사용하지만, 모든 문맥에서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빌립보서 1:24, 25, 그리고 2:24에 나타나는 석방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1:24, 25에서 1:19와 동일한 단어(“나는 안다”)를 사용하였고, 또한 빌립보서 2:24에서 사용한 언어(“나는 확신한다”)는 그가 자신의 석방을 확신했다는 증거라고 본다.³⁷⁾ 하

34) 비교적 최근 주석 중에서 공시적으로 본문 이해를 잘 다루고 있는 것은 피(G. D. Fee)의 주석과 G. Walter Hansen,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9)이다. 하지만, 그들도 통시적 관점의 약점을 보지 못하고 곧바로 수용해 버린다. 반면, 읍기를 통한 해석이 갖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John Reumann, *Philippians*, A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232-233, 243이 잘 설명했다.

35)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WBC,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1999), 126; Bonnie B. Thurston and Judith M. Ryan, *Philippians and Philemon*, SP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5), 62; 김세윤, 『빌립보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4), 56-57.

36)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985-986.

37) 흥미롭게도 호돈은 읍기의 이야기를 자신의 견해의 또다른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바울이 읍의 경우를 통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게 될 것을 확신했다고

지만, 이 해석의 근거 중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의 것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왜냐하면, BDAG는 σωτηρία가 신약의 다른 많은 경우에서 영적, 초월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다고도 말하기 때문이다.³⁸⁾ 그렇기에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헬라어 사전의 의미 영역을 선택하고 그것을 절대적 지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 증거는 공시적 접근법의 기본 전제와 맥을 같이 한다. 그렇기에 이것이 꼭 석방의 개념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는 법은 없다. 이런 면에서 두 번째 증거는 빌립보서 본문의 문맥과 내용이 무엇을 보증하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한편, 세 번째 증거는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어 보인다. 실제로 빌립보서 1:24-25와 2:24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석방을 기대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σωτηρία를 가능케 한 빌립보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도 석방과 무관할 것 같지 않다. 현실적으로 성도들은 바울이 석방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김세운 교수에 의하면, 바울은 담대함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는 간절한 희망으로 재판에 임하고, 그 결과 자신이 무죄 석방 될 것을 확신했다고 한다. 그는 빌립보서 1:19-20을 이렇게 번역한다:³⁹⁾

(나는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처지(수감생활)가 여러분들의 청원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풍성한 공급하심으로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던 것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대담히,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나의 구출(무죄 석방)로 귀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석방으로의 σωτηρία 개념은 일리 있어 보이지만, 이 의견을 선뜻 수용하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있다. 우선 빌립보서 1:20에서 말한 “살든지 죽든지”(『개역성경』)의 표현은 석방을 염두에 둔 바울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⁴⁰⁾ 이 말은 적어도 빌립보서 1:19-20에서는 바울이 석방과 죽음을 초월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석방의 개념은 빌립보서 1:19-20과 1:21과의 내용 연결에도 어려움을 준다. 위에서 제시된 김세운 교수의 번역과

설명한다(제랄드 호든, 『빌립보서』, 126).

38) W. Bau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986.

39) 김세운, 『빌립보서 강해』, 56-57.

40) M. Silva, *Philippia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77; G. Walter Hansen,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78; G. D.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129-130은 이것을 “긴장(tension)”이라고 표현한다.

『새번역』의 빌립보서 1:21의 내용을 연결하면 이렇다. “왜냐하면 ... 나의 구출(무죄 석방)로 귀결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석방을 확신하며 기뻐한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는, 왜 바로 다음 구절에서 자신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걸까? 『새번역』 성경이 생략한 원인 접속사 γὰρ(“왜냐하면”)를⁴¹⁾ 고려한다면 의아함은 더욱 증폭된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최우선적 가치인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 받게 되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과 죽음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자신의 그 죽음 역시 ‘유익’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석방만을 생각한다면 나오기 어려운 말이다. 오히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죽음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빌립보서 1:21-23에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과 삶의 선택을 언급한 것 역시 죽음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⁴²⁾ 만일 빌립보서 1:19에서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확신하고 기뻐한다고 말한 것이라면, 이후의 내용에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히려, 필자의 좁은 논리에 의하면, 빌립보서 1:19의 석방 내용은 곧바로 그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이야기하는 빌립보서 1:24-25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1:20의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과 빌립보서 1:21의 죽음의 유익에 대한 언급은 비록 바울이 빌립보서 1:24-25와 2:5에서 자신의 석방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적어도 빌립보서 1:19-20에서의 σωτηρία는 석방을 전제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1.2. 미래 종말적 개념의 구원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주로 욕기에 의존한다. 하지만, 욕기 이외에도 빌립보서의 내적 증거를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빌립보서 1:20에 나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다른 서신(예, 롬 8:19, 20, 24)에서 종말적 함의를 담고 있기에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역시 그렇다는 것이다.⁴³⁾ 또한 바울은 빌립보서 1:19 이후 여러 부분에서 미래 종말 개념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빌립보서 1:19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

41) 『개역개정』은 “이는”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한다.

42) 제랄드 호든, 『빌립보서』, 132는 이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삶의 여정에서의 지침과 감옥에서의 석방 등의 이유로 삶과 죽음을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의문이다. 더군다나, 만일 바울의 정황이 확실한 석방을 향해 가고 있고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다면, 죽음을 향한 그의 선택은 석방되고 싶지 않고 죽음을 맞고 싶은 일종의 자살 선택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다. 예, A. J. Droge, “*Mori Lucrum: Paul and Ancient Theories of Suicide*”, *NovT* 30 (1988), 278, 285; idem, “Suicide”, *ABD* 6, 228-229.

43) M. N. A. Bockmuehl,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84.

는 단서가 된다고 주장한다.⁴⁴⁾ 여기에는 미래적 구원 개념으로 여기는 빌립보서 1:28의 σωτηρία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의 높아지심에 대한 예(빌 2:9-11), 그리고 미래에 주실 “부름의 상”이라는 언급(빌 3:14)과 장차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인 예수를 기다리라고 하는 빌립보서 3:20-21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빌립보서 1:19의 내용을 미래 종말적 개념으로 볼 일차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우선 빌립보서 1:20에 나오는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반드시 미래 종말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금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일차적 증거로서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또한 빌립보서 1:20에 의하면, 바울의 초점은 미래가 아닌 ‘지금(vñv)’이다. 이전에 항상 그랬던 것처럼(ὡς πάντοτε) 지금도 자신의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이 초점이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1:20에 나오는 기대와 소망이 반드시 미래 종말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σωτηρία가 나오는 빌립보서 1:28의 경우를 제외하고 빌립보서 1:19 이후에 보이는 바울의 미래 종말적 언급들을 빌립보서 1:19의 직접적 단서로 사용하는 것에도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19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이후에 진행할 내용의 문맥이 아닌,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담고 있는 문맥과 거기까지 이르게 된 이전의 문맥에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중에 나오는 부분들은 이차적 검증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1:28은 빌립보서 1:19와 동일한 단어를 담고 있고 때문에 다른 것과 경우가 조금 다르다. 하지만, 단순히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1:19의 내용을 미래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빌립보서 1:28의 문맥은 빌립보서 1:19에 대한 ‘현재적 이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해 본다면,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미래 종말적 상황으로 보는 근거들은 다 외부에서 온 것이고, 어찌 보면 이차적인 것이다. 결국, 이 견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현재 다루고 있는 본문의 의미 도출을 위해 이차적 근거들을 통해 가정된 생각이나 증거를 본문에 투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욕기에 대한 이해를 그 중심에 두고 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3.2. 공시적 접근을 통한 대안적 이해

공시적 접근을 통한 빌립보서 1:19의 이해에 있어 석방이나 미래 종말적 의

44) Ibid., 85.

미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 비록 소수이지만, 최근에는 다른 목소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제 필자는 최근 제시된 이러한 제안들과 대화하면서 빌립보서 1:19에 대한 대안적 이해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문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 1:19-20의 내용 분석을 우선적으로 하려 한다. 이것은 통시적 접근의 약점에 대한 대안이다. 내용 분석을 통한 필자의 제안 이후의 검증은 *σωτηρία* 단어에 대한 번역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을 다른 서신들을 참조하며 살펴보는 작업과 빌립보서 1:19-20의 이전의 본문을 고려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들어 있는 빌립보서 1:28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작업 등이 포함될 것이다.⁴⁵⁾

3.2.1. 빌립보서 1:19-20의 구조와 내용 분석

빌립보서 1:19는 빌립보서 1:12-18상반에 이은 바울의 또다른 기쁨의 이유를 말해주는 부분으로, 정동사(finite verb) *οἶδα*의 내용을 종속접속사 *ὅτι*로 시작하여 설명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19절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이어 나오는 20절이 불연속을 나타내는 접속사(예, *δὲ*나 *ἀλλὰ*)나 정동사 혹은 명사구를 통한 새로운 독립절의 시작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20절은 *κατά*로 시작하는 전치사구로 시작한다.⁴⁶⁾ 비록 20절의 종속 접속사 *ὅτι*가 *κατά* 전치사구의 내용을 설명하는지,⁴⁷⁾ 아니면 19절의 *ὅτι*와 병행절을 만들어 *οἶδα*동사의 목적절을 만드는지⁴⁸⁾ 논란이 있지만, 어느 것을 선택하든 20절의 내용은 독립적이지 않고 19절과 연결되게 된다. 그렇기에 19절의 내용은 20절과 함께 고려해 생각해야 한다.⁴⁹⁾

그렇다면 빌립보서 1:20과 연결된 내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방금 언급한 20절의 *ὅτι*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이

45) 빌립보서 2:12에도 *σωτηρία*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문맥적 정황상 빌립보서 1:28의 경우보다 연관성이 덜하기에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또한 빌립보서 1:19 이후 문맥에서 나오는 미래와 연관된 현재적 구원에 대한 생각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지만, 역시 지면관계상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겠다.

46) *κατά τὴν ἀποκαταδοκίαν καὶ ἐλπίδα μου*: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개역개정』).

47) 많은 주석가들. 예를 들어 M. Silva, *Philippians*, 68; G. D.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129-130 등등.

48)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129; W. Schenk, *Die Philipperbriefe des Paulus* (Stuttgart: W. Kohlhammer, 1984), 144-145.

49) 우리말 번역들은 이것을 잘 살려서 옮기지 못했다. 『새번역』이나 『공동번역』은 빌립보서 1:19와 20의 단절을 엮두에 두고 전치사구를 마치 명사구처럼 번역했다(“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반면 『개역개정』은 이 두 절의 연결성을 생각하고 전치사구의 부사적 역할을 인지했다. 하지만, 빌립보서 1:19의 “... 아는 고로”라는 표현을 통해 마치 20절이 19절의 결과처럼 번역을 했다. 이는 적절하지 못하다.

접속사가 κατά 전치사구와 상관없이 19절의 ὅτι와 평행되는 것으로 본다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바울의 어려운 상황⁵⁰⁾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처럼 성도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σωτηρία로 귀결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전처럼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⁵¹⁾ 이런 구조 이해는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20절의 ὅτι 앞에 연결 접속사 και를 붙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것은 19절의 두 번째 이유 설명이기 보다는 바로 앞에 나오는 κατά 전치사구의 명사들(기대와 소망)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⁵²⁾ 더 나아가 이런 구조를 통해 호돈이 제시하듯 σωτηρία를 석방으로 직접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빌립보서 1:18상반에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바로 다음에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석방과 연결시켜 전달했을 것 같지 않다. 또한 위에서 지적한대로 석방과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 사이의 ‘긴장’ 역시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보다 나은 이해는 빌립보서 1:20의 ὅτι에 대한 두 번째 견해로, 이 접속사가 κατά 전치사구의 명사들과 연결해 그 내용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빌립보서 1:19-20은 바울의 상황이 그에게 σωτηρία 상태로 이끈다는 빌립보서 1:19상반의 내용 전체를 διά와 κατά로 시작 되는 두 개의 전치사구로 수식 설명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διά 전치사구는 자신의 상황을 가능케 할 동인(動因)을 설명하는 역할(“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개역개정』])을 하고, 평가의 근거 혹은 기준을 제공하는 κατά 전치사구(“~을 따라, ~에 근거한”)는⁵³⁾ 자신의 상황에 대한 바울의 평가와 확신이 빌립보서 1:20에 나온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근거한 것임을 설명한다. 여기서 κατά 전치사구는 σωτηρία 이해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전치사구를 통해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 즉 자기의 현재 상황이 σωτηρία 상태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은 그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50) 빌립보서 1:19의 τοῦτό(“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필자는 이 대명사가 전방일치(anaphoric) 역할로서 빌립보서 1:12부터 설명된 바울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51) 제랄드 호돈, 『빌립보서』, 125.

52) G. D. Fee,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129 n. 10; P. T. O'Brie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113 n. 35.

53) 평가 기준의 의미를 제공하는 κατά의 기능 설명에 대해서는 S. E. Porter, *Idioms of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63; A. T. Robertson,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1934), 608-609 참조.

품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과 연관 있음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와 소망의 언어 사용은 그 내용의 성취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연관성은 σωτηρία 상태가 바울의 기대와 소망의 성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을 준다.⁵⁴⁾

그렇다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의 내용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것을 부정과 긍정의 언어로 표현한다. 우선 부정의 언어를 통해 바울은 어떤 것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그의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복음과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⁵⁵⁾ 또한 바울은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임을 말한다. 바울은 이런 긍정과 부정의 언어들 속에 몇 가지 부가적 표현들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인상 깊게 전달한다. 첫째는 ὡς πάντοτε καὶ νῦν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사역])의 표현이다. 비록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αἰσχυνθήσομαι)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μεγαλυνθήσεται)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가 표현은 바울의 마음이 먼 미래가 아닌 현재라고 불리는 지금의 상황에 고정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그렇기에 앞서 지적한 대로 바울의 기대와 소망, 그리고 이것과 연결한 σωτηρία의 상태를 미래 종말적 시점으로 둘 수 없는 것이다. 둘째는 “내 몸에서”(『개역개정』)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수감이나 석방 등의 상황 자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바울의 존재, 증거, 상황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셋째는 “온전히 담대하여”(『개역개정』)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겠다는 것과 대조되는 것으로 자신의 기대와 소망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침언은 “살든지 죽든지”이다. 이것은 바울의 최종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드러내준다. 즉, 자신이 석방되든 그렇지 않든, 그것 자체가 바울의 최종적 관심사가 아니다. 그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σωτηρία 상태를 단지 석방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결국 바울은 이런 침언들을 수반한 κατά 전치사구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의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드러내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임을 밝히고 있다. 더 나아

54)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의 내용 자체를 σωτηρία라고 직접 연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κατά 전치사구가 꾸미는 것은 σωτηρία라는 단어가 아닌 빌립보서 1:19상반의 전체 내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κατά 전치사구는 σωτηρία의 모습, 상황 혹은 상태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55) G. Walter Hansen, *he Letter to the Philippians*, 80.

가 그는 이 소망과 기대를 근거로 자신의 상황이 σωτηρία 상태로 이르게 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이 부분의 σωτηρία 상태를 자신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상태와 연결시키고 있는 듯하다.⁵⁶⁾

3.2.2.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 개념 이해와 타당성 검증

(1) 번역과 개념 이해

위에서 제시한 이해에 의하면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조심스럽지만, 필자는 그 단어를 ‘구원 상태’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은 구원에 대한 기존 이해가 성경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구원에 대한 다른 측면의 보장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보상 혹은 상급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즉, 칭의 개념을 예로 든다면, 이것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활동을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 얻는 어떤 것으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적 구원과 마찬가지로 미래적 구원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받을 어떤 것의 개념으로 설명하곤 했다. 맞는 개념이다. 바울은 로마서 3:21-5:11에서 그런 이해를 설명한다. 하지만, 구원은 그런 상호작용의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영역의 옮김과 옮겨진 영역 안에서의 삶을 구원이라고 묘사한다. 즉, 죄와 사탄의 옛 통치에서 옮겨져 하나님과 성령이 다스리는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과 그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원(소위 말하는 ‘성화’)으로 묘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4에서 바울은 예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악한 세대’에서 건져낸 것으로 묘사한다. 여기서 악한 세대는 종말론적 이원론의 견지에서 세상을 영적인 의미에서 악한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눈 표현이다.⁵⁷⁾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예수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영역으로의 옮김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또다른 예는 에베소서 2장에 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전 상태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사탄)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 묘사하고(엡 2:1-3),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예수가 통치하는 영역(“in Christ”)으로 옮긴 것을 구원으로 제시한다. 이 개념은 골로새서 1:13-14에 이

56) G. Walter Hansen,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80; J. Reumann, *Philippians*, 244; M. Silva, *Philippians*, 72 참조. 이것은 바울의 복음 전파와 믿음을 통해 장래에 하나님이 그의 상태를 인정해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57) J. L. Martyn, *Galatians*, AB (New York: Doubleday, 1997), 98.

렇게 표현되어 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개역개정』).

무엇보다 로마서 5:12부터 8장까지는 영역으로서의 구원 개념을 잘 보여준다. 바울은 로마서 5:12-21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 두 영역의 전반적 특징을 설명한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두 영역 대조의 핵심이자, 각각 죄와 사망의 옛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새 영역의 문을 연 사람들이다. 이런 대조의 틀 안에서 로마서 6:1-14는 옛 영역에서 새 영역으로의 옮김의 핵심을 세례(침례)를 통해 설명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옛 영역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영역으로 옮겨와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로마서 6:15에서 8장까지는 새 영역에서의 삶을 옛 영역과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바울은 이 새 영역 안에서의 삶을 구원의 삶이라고 묘사한다. 이런 구원의 삶은 현재의 삶과 미래의 모습(예, 롬 8:29-30)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렇기에 바울에게 있어 구원이란 적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의 개념과 영역 옮김의 개념이 동반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여기에는 신자들의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아우르고 있다.⁵⁸⁾

만일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보여주었던 영역과 관련한 구원 이해를 빌립보서에도 개진하고 있다면, 위에서 제시한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영역 개념의 구원 또는 구원 상태와 연결짓는 것은 무리한 시도가 아니다.⁵⁹⁾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 영역 안으로 ‘옮김의 구원’을 받은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영역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는 것’ 역시 구원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담대히 드러내어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은 현재적 의미에서 새 영역 안에 온전히 머무는 구원 상태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물론 바울은 상호작용의 미래적 측면, 즉 미래에 있을 종말론적 심판에서 인정받을 것과 영역 개념의 미래적 측면 역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예, 빌 3장). 하지만, 적어도 빌립보서 1:19에 나타난 바울의 관심은 자신의 상황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속에 드러나는 새 영역 안에서의 현재적 구원 상태이다. 이런 면에서 새 영역으로의 옮

58) 로마서의 상호작용과 영역개념으로서의 구원 설명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432-39; idem,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Canon & Culture』 (2010), 183-215를 참조.

59) 만일 빌립보서가 바울의 1차 로마 투옥 때 쓰여진 것이라면, 로마서는 바울이 투옥되기 전 마지막으로 쓰여진 서신이다. 이런 면에서 바울이 로마서의 구원 개념을 빌립보서에서도 사용했을 거라는 추측은 그리 무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김과 그 안에서의 삶이라는 구원 개념은 빌립보서 1:19에서 증거를 통해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이는 삶의 상태를 ‘구원 상태’로 연결시키는 틀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빌립보서 1:19-20에 대해 이런 이해를 제공하려 한다:

(나는 또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것(지금의 상황)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구원 상태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빌립보서 1:19 이전 본문을 통한 증언

위와 같은 σωτηρία 이해는 빌립보서 1:19의 이전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증언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다. 그는 빌립보서 1:19 바로 앞에서 자신의 상황(빌 1:12-13)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빌 1:14-18상반)에 대해 언급한다. 하지만 그 초점은 바울의 수감생활 자체가 아니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음과 그로 인해 그리스도가 높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기쁨임을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런 관심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그의 기도(빌 1:4-11)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빌립보서 1:6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함께 해온 복음 전파의 동역(예, 빌 1:5)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기를 간구한다. 여기가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이유 부분인 것을 고려한다면, 바울은 그의 독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계속 확인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빌립보서 1:7에서 빌립보 교인이 자신의 은혜의 상태(χάρις)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때 바울이 의미하는 은혜의 상태란 복음 때문에 당하는 투옥과 복음 변명함과 확정과 관련된 상황이다. 이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간혀 있는 자신의 상황 그 자체를 현재적 구원이 경험되는 ‘은혜’의 상태라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⁰⁾ 이런 면에서 자신의 상황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통해 오로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구원 상태’가 되는 것을 현재적 구원의 기쁨으로 여긴다는 빌립보서 1:19의 내용은 독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바울의 관심을 읽게 했을 것이다.

(3) 빌립보서 1:28과의 연관성

빌립보서 1:28은 빌립보서 1:19와 같은 σωτηρία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뿐만

60) M. Silva, *Philippians*, 53-54.

아니라, 이 두 구절은 외적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복음 증거라는 공통적 연결점이 있다. 또한 바울이 옥에 갇힌 것과 빌립보 교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로마와 관련 있는 것 또한 연결점일 수 있다. 한편, 빌립보서 1:28의 σωτηρία는 육체적 구원이 아닌, 소위 영적 구원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래 종말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¹⁾ 특별히 “멸망의 증거”와 “구원의 증거” 사이의 대조는 그런 이해를 더욱 뒷받침 해준다. 그렇기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서 1:19에 대해 미래 종말적 개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빌립보서 1:28을 1:19에 대한 증거 본문으로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학자들의 이런 이해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1:28의 σωτηρία를 단순히 미래적 심판에서 받는 보상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미래 종말적 관점에서 멸망이 아닌 구원을 받는 것은 상호작용적 관점의 적용이다. 하지만, 여기에 영역 개념의 구원을 적용해 보면 바울은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신자의 삶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빌립보서 1:28을 담고 있는 부분은 배타적 혹은 적대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빌립보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다. 다시 말해, 옛 영역에 속한 세상의 핍박에 직면한 새 영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견디라고 권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빌립보서 1:28에 나오는 핍박자들이 두렵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장차 받을 멸망(진노)을 쌓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또 진노를 받고 있는 옛 영역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반대로 그들의 위협에 견디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복음에 든든히 서 있는 것은 이미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의 영역에 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 있는 것은 그들의 ‘구원 상태’의 증거이다.⁶²⁾ 이런 개념은 수감된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새 영역 안에서의 구원 상태를 추구하는 바울의 상황과 연관성이 있다. 어쩌면 바울은 이런 면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결론적으로, 뒤에 나온 빌립보서 1:28의 내용은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1:19를 미래 종말적 개념으로 보게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바울이 빌립보서 1:19에서 보인 영역 개념의 현재적 구원 상태 이해를 나중에 빌립보서 1:28에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우를 거울로 삼으라고 빌립보서 1:19의 개념을 사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61) P. T. O'Brien,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156.

62) G. Walter Hansen,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101. 하지만, 그는 영역 개념의 구원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4. 나가면서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이해하는 작업은 단순히 사전적 어휘 결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 단어를 둘러싼 표현은 구약과의 연계성을 생각하게 하기 에, 그것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렇기에 그 작업은 일차적으로 성경 본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해석적 영역과 잇닿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재 행해지고 있는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의 내용과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빌립보서 1:19 해석의 주류라고 여겨질 수 있는 통시적 방법, 특별히 올림을 통한 본문 상호성 연구방법은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읊기 내용의 반영인 미래 종말적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한다. 즉,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로 오는 구원 혹은 인정의 의미가 그것이다. 하지만, 본문 상호성을 통한 통시적 접근은 방법론적 문제와 또 현재 본문에 적용할 때 부딪히는 난제들 때문에 일차적 접근법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상대적으로 공시적 방법은 바울의 현재 본문의 문맥과 내용에 우선적으로 집중한다는 점에서 본문 해석의 일차적 접근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에 의한 몇 가지 제안들(예, 바울의 석방의 개념, 미래 종말적 개념 등)은 빌립보서 1:19의 내용과 문맥에 비춰보면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필자는 빌립보서 1:19-20의 구조와 κατά 전치사구의 역할과 내용에 따라 빌립보서 1:19의 σωτηρία를 구원의 상태로 이해해야 하며, 바울의 소망, 즉 자신의 삶에서 부끄러움 없는 증거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함을 논했다.

한 단어의 의미 결정부터 시작되는 성경 이해의 과정은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여러 해석학적 접근법의 내용과 그것에 기초한 본문 분석 등의 여러 차원을 고려하는 작업이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번역의 영역을 포함해서 바울 서신의 내용 이해, 그리고 그를 통한 신학적 내용과 오늘의 삶의 원리를 추출하는 제반 과정 속에도 담겨있는 전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존의 방법을 당연시 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절대시 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표면적 읽기 과정과 그 이면의 해석 전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아 적절함을 향해 정진하는 것은 모든 진지한 성경학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본 논문이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되었기를 소망한다.

<주요어>(Keywords)

통시적 접근법, 본문 상호성, 공시적 접근법, σωτηρία와 구원 상태, 두 영역의 구원 개념.

Diachronic approach, Intertextuality, Synchronic approach, σωτηρία and salvific state, Two-realm framework in salvation.

(투고 일자: 2012년 11월 26일, 심사 일자: 2013년 2월 22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4월 2일)

<참고문헌>(References)

-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0.
- J. 그닐카, 『필립피서』,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 김세운, 『빌립보서 강해』, 서울: 두란노, 2004.
- 김연태, 『빌립보서』,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이재현,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Canon & Culture』 (2010), 183-215.
- 클린스, 데이빗 J. A., 『욥기 1-20』, WBC, 한영성 역, 서울: 솔로몬, 2006.
- 타우너, 필립, “본문 상호성: 번역에서 잃어버린 것과 찾은 것”, 양재훈 역, 『성경 원문연구』 20 (2009), 137-154.
- 호돈, 제랄드, 『빌립보서』, WBC, 채천석 역, 서울: 솔로몬, 1999.
- Alden, R. L., *Job*, NAC, Nashville: Broadman & Holman, 1993.
- Banker, J., *A Semantic and Structural Analysis of Philippians*, Dallas: SIL, 1996.
- Bauer, W.,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ockmuehl, M. N. A.,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BNTC, Peabody: Hendrickson, 1998.
- Collange, Jean-Francois, *The Epistle of Saint Paul's to the Philippians*, London: Epworth Press, 1975.
- Droge, A. J., “*Mori Lucrum*: Paul and Ancient Theories of Suicide”, *NovT* 30 (1988), 263-286
- Droge, A. J., “Suicide”, *ABD* VI, 228-229.
- Ellis, E. E.,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57.
- Estes, D. J., *Handbook on the Wisdom Books and Psalms*, Grand Rapids: Baker

- Academics, 2005.
- Evans, C. A., “‘It is Not as though the Word of God Had Failed’: An Introduction to Paul and the Scriptures of Israel”,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Paul and the Scripture of Israel*, JSNTSup 83, Sheffield: JSOT Press, 1992, 13-17.
- Fee, G. D., *Paul’s Letter to the Philipp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 Fishbane, Michael, *Biblical Interpretation in Ancient Israel*, Oxford: Clarendon, 1985
- Fowl, S. E., *Philippians*, THNTC, Grand Rapids: Eerdmans, 2005.
- Garland, D. E., “Philippians”, Tremper Longman III and David E. Garland, eds., *The Expository Bible Commentary 12*, Grand Rapids: Zondervan, 2006, 175-262.
- Hansen, G. Walter,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PNTC, Grand Rapids: Eerdmans, 2009.
- Hartley, John E., *The Book of Job*,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8.
- Hays, R.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Lee, Jae Hyun,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2010.
- Litwak, K. D., “Echoes of Scripture? A Critical Survey of Recent Works on Paul’s Use of the Old Testament”, *CurBS* 6 (1998), 260-288.
- Martyn, J. L., *Galatians*, AB, New York: Doubleday, 1997.
- Melick, R. R., *Philippians, Colossians, Philemon*, NAC, Nashville: Broadman Press, 1991.
- Michael, J. H., “Paul and Job: A Neglected Analogy”, *ExpT* 36 (1924-25), 67-73;
- Michael, J. H.,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MNTC, New York: Harper, 1928.
- Moyise, Steve, “Paul and Scripture in Dispute: Romans 2:24 As Test-Case”, *PIBA* (2006), 78-96.
- O’Brien, P. T., *The Epistle to the Philippian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1.
- Porter, S. E., *Idioms of Greek New Testamen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Porter, S. E., “The Use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Testament: A Brief Comment on Method and Terminology”,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Early Christian Interpretation of the Scripture of Israel: Investigations*

- and Proposals, JSNTSup 148,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75-96.
- Reumann, J., “The (Greek) Old Testament in Philippians: 1:19 As Parade Example - Allusion, Echo, Proverb?”, S. A. Son, ed., *History and Exegesis: New Testament Essays in Honor of E. Earle Ellis on His Eightieth Birthday*, New York: T & T Clark International, 2006, 189-200.
- Robertson, A. T., *A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in Light of Historical Research*, Nashville: Broadman, 1934.
- Reumann, J., *Philippians*, A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8.
- Schenk, W., *Die Philipperbriefe des Paulus*, Stuttgart: W. Kohlhammer, 1984.
- Silva, M., *Philippians*, Grand Rapid: Baker Academic, 2005.
- Stanley, C. D., “‘The Redeemer will Come ἐκ Σιῶν’: Romans 11:26-27 Revisited”, C. A. Evans and J. A. Sanders, eds., *Paul and the Scripture of Israel*, JSNTSup 83, Sheffield: JSOT Press, 1992, 118-142.
- Stanley, C. D., *Arguing with Scripture*, New York: T & T Clark, 2004.
- Thielman, F., *Philippian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1995.
- Thurston, Bonnie B. and Judith M. Ryan, *Philippians and Philemon*, SP,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2005.
- Vincent, Marvin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s to the Philippians and to the Philemon*, ICC, Edinburgh: T & T Clark, 1897.
- Witherington, B., *Friendship and Finances in Philippi*, Valley Forg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4.

<Abstract>

**Revisiting σωτηρία in Philippians 1:19:
An Evaluation of the Diachronic Approach and Suggestion of the
Synchronic Approach**

Dr. Jae Hyun Lee
(Korea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What is the meaning of σωτηρία in Phil 1:19? To determine its meaning is not just a matter of choosing among lexico-semantic options. Rather, this process contains a possibility that the way of thinking could be different according to one's stance on the expression that is regarded to be relevant to Job 13:16 (LXX). In this sense,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meaning of σωτηρία in Phil 1:19 is connected to the area of hermeneutics. As an important step, this paper evaluates two kinds of approaches to Phil 1:19 with this concept in mind.

At the outset, this paper examines the diachronic approach to Phil 1:19, especially the intertextual approach with the concept of echoes. Those who support this approach assume that since Phil 1:19 reflects Job 13:16 as an echo, the content of the OT text should be a definite clue in deciding the meaning of σωτηρία in Phil 1:19. Such assumption leads them to see the meaning of σωτηρία as future eschatological salvation or vindication from God. However,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using this approach as the primary way for understanding σωτηρία. The diachronic approach contains its methodological weakness not only in defining the so-called echoes of the OT, but also in answering several difficult questions regarding the application of consonance of the OT to the present text.

This study then deals with the second approach, the synchronic approach to the text, which focuses on the present text and its context, and argues that this approach be used as the primary way in interpreting Phil 1:19. Evaluating the two kinds of understanding of σωτηρία, such as 'release from prison' and 'future eschatological salvation or vindication', which are suggested through synchronic approach, this study proposes another interpret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Phil 1:19-20, the prepositional phrase with κατά in Phil 1:20 plays an

important role in identifying the meaning of σωτηρία in Phil 1:19. As an additional modification of the main reason of Paul's joy in Phil 1:19, it reflects Paul's eager expectation and hope in relation to his present situation. Based o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structure and content of Phil 1:19-20,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σωτηρία in Phil 1:19 be understood as the status that the dignity of Jesus will be raised through the life of Paul and his bold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is status reflects the present aspect of salvation in two-realm framework, and matches well with the previous context of Phil 1:19.